



2013년부터 사고운전자의 차량보험료 대폭 인상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손보사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사업의 수지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최대 51%까지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.

- 자동차보험 계약은 1~20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많이 할인됨.
 - 무사고 1년 시 이듬해부터 1등급씩 올라가 보험료는 낮아지지만, 한 번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3등급이 강등되어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구조임.¹⁾
- 본 제도는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등급제도와 사고 시 할증보험료 기준 등을 바탕으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됨.

■ 사고운전자의 차량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일부 손보사들은 차량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‘드라이브 레코더(ドライブレコーダー)’ 기능을 지닌 스마트폰용 무료 어플을 제공하기로 함.

- 미츠이 스미토모해상화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, 관련 사고의 영상을 자동적으로 녹화하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, 오는 8월부터 가입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임.
 - 일명 ‘스마보(スマ保)’라고 불리는 무료 어플은 스마트폰을 자동차 대시보드 등에 고정시키면, 충돌 시 충격이나 급브레이크를 감지해 자동적으로 전후 10초간의 영상을 녹화 및 보존하는 기능을 함.
- 또한 운전자의 차량 흔들림 등을 기초로 운전 습관을 분석·진단하여 점수화하는 기능도 부과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임.

(아사히 外, 5/2)

1) 한 예로, 20등급에 연 5만 엔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계약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, 등급은 17등급으로 강등되고 보험료는 8만 3,783엔으로 약 68% 이상 인상됨. 이는 기존 제도에서의 보험료 인상폭인 16.2%(보험료 5만 8,108엔)에 비해 44% 이상 높은 수준임.